개혁과 희망 그리고 안정

2003년 3월 26일 (수) | 제 8-2 호

KT노보

제8대 당당한 노동조합

2면-우리사주조합과 경영참여

KT 우리사주조합이 처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 운영상의 결함과 관련해서는 우리사주조합의 임원선출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불법 ·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법의 규정 등을 활용하여 시정해야 할 것이다

KTTU KT노동조합 / 발행인 지재식 / 편집인 강세홍 /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전화 031-727-4820~4854 / 전송 02-750-5404 / 홈페이지 www.kttu.or.kr / 편집디자인 길컴(02-2272-7114)

대의원대회, 규약개정 단체협약 갱신 등 논의

본회의 효율적으로 운영해 성공적… 분반토론 활성화로 토론문화 정착돼야

2003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가 지난 3월 6일부터 8일까지 지리산 수련관에서 치뤄졌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8대 집행부 3년 임기동안의 주요사업을 심의하고 올해 임금인상과 함께 단체협약을 갱신 등의 굵직한 사안들이 논의 의결됐다.

특히 올해는 본회의 전 분반토론을 진행해 대의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그 동안 전국 대의원대회는 몇몇 대의원에 의해 발언이 독점되고, 진부한 회의 진행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분반토론을 통해 회의 안건을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본회는 짧고 효율적으로 진행됐다.

대의원들 또한 연초 조직개편 저지투쟁을 겪으면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진듯 해보였다. 분반토론과 회의시간 내내 진진한 태도로 임해 그 어느 해보다 승리하는 대의원대회가 될 수 있었다.

지난 3월 6일부터 치뤄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지재식위원장이 본회의 개막을 선포하고 있다

주요결정사안

1. 2003년 예산 심의: 조합비 1%로 인상

2003년 사업계획은 재정 자립화(2006년부터 전임자 임금 자체 마련)와 정책 연구소 운영, 노동대학 설립 등을 위해 부득이 조합비를 현재의 기본급 0.85%에서 1%로 인상한 예산안을 결정했다. <4월 급여부터 적용>

KT노동조합의 조합비는 현대자동차노조 기본급 1%, 지하철 노조 기본급 2%, SKT노조 기본급의 1.5%, 전력노조 통상임금의 1% 등에 비해 많지 않은 조합비의 현실이 감안됐다. 회의 과정에서 대의원들은 투명한 재정운영과 고용안정의 노력, 임금 인상 노력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신뢰를 높힐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2. 한국IT산업노동조합협의회 가입 결정

한국IT산업노동조합협의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유무선 업체 노조들이 연대하는 단체로써, 현재는 SKT노조, KTF노조, KTI노조, 엔터프라이즈 노조, 그리고 KT노동조합이 참가하고 있다. IT노협은 통신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함께 통신업종 노조로써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공동대응을 해 나갈 것이며, 향후 연대의 질을 높여 IT연맹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3. 규약 주요 변경 내용

◇ 제1조(명칭) : 한국전기통신공사노동조합, 약칭 한국통신노동조합을 KT노동조합으로 변경.

◇ 제4조(사무소) : ~ 경기도 내에 둔다를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내에'로 변경.

◇ 제11조(조합원의 신분보장) : ②항 신분보장 절차 2호 중 '~ 중앙상무집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로써 그 신분을 보장한다'를 '~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의결 한다. ③ 이에 불복한 자는 중앙위원회 재심 심의.의결을 거쳐 7일 이내에 구제 당사자 또는 유족(가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로 변경.

◇ 6호중 '~ 승소나 임금을 쟁취했을 경우에는 조합에서 지급된 금액의 50%를 조합에 환급하여야 ~'를 '~ 임금 등을 보상받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지급한 신분보장기금(또는 임금)의 70%를 보상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환수~'로 변경

◇ '지방본부위원장 회의' 신설

◇ 중앙본부 부서 일부 변경(대협2국->총무국, 임금복지국 -> 복지1, 복지2국으로, 경영대책국, 조사통계국, 정보통신국 ->정책1, 정책2, 정책3국으로, 교섭국은 폐지)

◇ 기타 문구 변경

4. 임원 및 주요위원 선출

△ 정흥곤 부위원장, 양정우 사무처장, 안창식 정책기획실장, 류춘용 조직처장, 강세홍 교육선전실장 인준

△ 회계감사위원 7명 선출

△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 및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

※ 자세한 명단은 노동조합 홈페이지 문서자료에 있습니다.

5. 2003년 임금 총액대비 9.1% 인상 요구 안 확정

6. 단체협약요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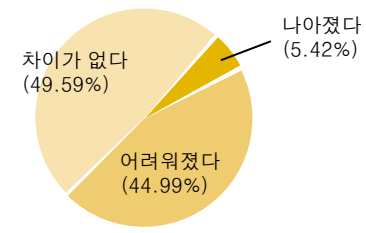
노동조합 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고용 안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개정요구안 확정했다.

7.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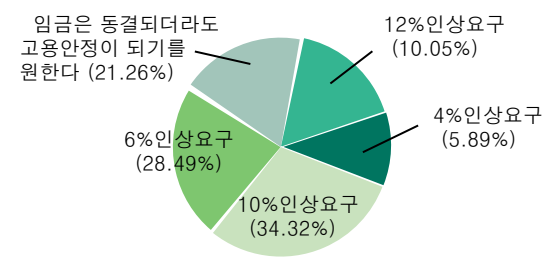
상품판매 문제, 'D'등급 문제, 개악된 인사 및 보수규정 대책문제, PDA 관련 문제 등 현안문제 56건의 사항을 제출했고, 의장은 이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총액임금 10%인상요구

조합원, 경제적 여건 변화없거나 어려워져



귀하와 귀하 가족은 경제적 여건이 지난해에 비해 어떻게 변화하셨습니까?



본인의 임금을 총액기준으로 몇 % 정도의 인상을 기대합니까?

지난 2월 14일부터 19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12,101명)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없거(49.59%)나 더 어려워진 것(44.99%)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녀교육, 주택문제, 여가활용, 의료문제 등의 여건이 나아졌다고 밝힌 사람은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5%가 주택과 교육비 마련을 위해 예금을 한다고 밝혔지만 예금, 저축성보험, 개인연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40만원이하(60.62%)에 머물고 있어 장기적인 목돈 마련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71%에 이르는 조합원이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부채상환(월30만원)과 자녀 교육비(20~50만원)에 대한 부담이 상당액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총액임금 기준 10% 수준의 인상을 요구(34.32%)하고 있으며 회사의 종사원 임금삭감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59.46%)는 입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3년 경제지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5.7%, 소비자 물가 상승률 3.4%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KT의 매출액이 약 11조 7,088억원, 당기순이익이 1조 9,638억원에 도달했다. 반면 IMF이후 KT의 실질임금이 경제회복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와 같은 의견을 수렴해 총액대비 9.1% 인상을 사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는 총액대비 7.1%의 임금인상과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특별상여금 100% 지급, 우리사주 기금 배분 50주를 합산한 수치이다.

설문시행일시 ; 2003년 2월 14일~ 2월19일

3면: 노사협의 통해 전략상품 선정

메가패스, 네스팟, 스마트카드 3종을 전략상품으로 선정하고 상품판매에 대한 감시기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자금 연내 지급키로

노동조합 "학자금 이자지급 도래자에 당장 지급해야"

3월 25일 오후 3시 복지기금협의회가 개최됐다. 복지기금협의회는 복지기금의 운영 및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복지기금협의회는 2002년 결산 및 2003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노동조합에서는 회사의 복지기금 출연과 학자금 지급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고자 했다.

첫째 안건으로 2002년 복지기금 운영 결산보고가 있었는데, 총 자산 2,400억원이고 증시 침체 등으로 일부 손실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참여 위원들은 손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이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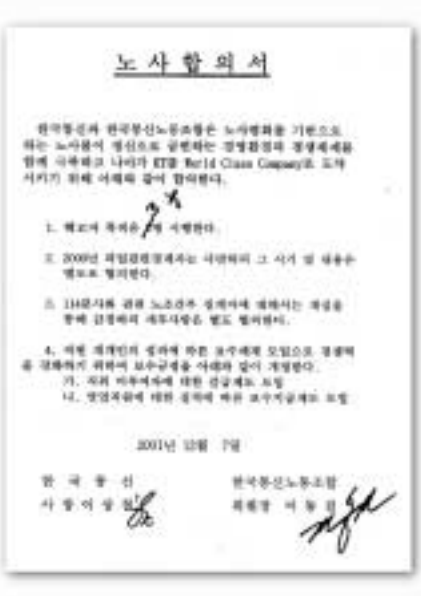
둘째 안건으로 사측에서 제출한 2003년 사업계획은 사업중 중요한 학자금지급관련 사업이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노조측에서 적극 이의제기를 하여 결국 학자금지급을 2003년 사업계획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예산지출은 당해년도 복지기금 출연금에서 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째 기타 안건으로 노조측이 제출한 기금출연 및 학자금 지급 구체사안에 대해 사측은 이사회에서 기금출연이 확정돼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측은 "노사합의 사항이며 단협에 명시된 사항을 왜 이사회와 연계하느냐"며 "당장 학자금이자지급 도래자부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자금 지급 문제에 대해 사측에서는 "학자금 지급은 하겠지만 이자 증식이 없는 올 해의 조건상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6월 말까지 반드시 해결하겠다. 그리고 당장 학자금 이자 지급 도래자의 경우 지급 이자분을 본인이 부담하게되지만 6월말 해결 시점에서 소급 보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3시간의 회의에서 지급시기에 대한 최종 결론을 얻지 못하고, 노동조합의 주장을 노사실무담당자가 적극 검토해 재론하기로 하고 회의를 오후 6시에 마쳤다.

한편, 대학학자금은 1999년, 정부의 공기업 혁신과제 실천사항으로 노사간 합의를 통해 지원에서 대부로 전환 시행해 올 3월부터 상환 도래자가 발생하고 있다.



노 사 합 의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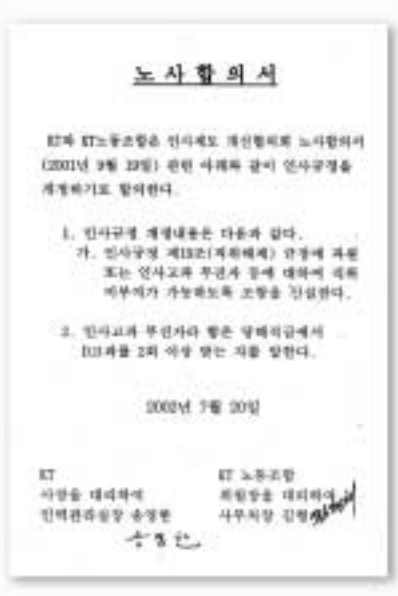
2001년 12월 7일

한국통신 사장 이 상 철

한국통신노동조합 위원장 이 동 건

절차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진행된 인사 및 보수규정 개정은 원천무효이다

인사 및 보수규정에 관한 개정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노사교섭 테이블에서
처음부터 다시 노사간에 논의되어야 한다.
만일 사측이 절차를 무시하고 음모적인 인사 및 보수규정 개정을
밀어부치기식으로 주장한다면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자주적인 노동조합 사수를 위해,
노동조합의 모든 것을 걸고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방안을 강구
하여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노 사 합 의 서

2002년 7월 20일

KT 사장을 대리하여 인력관리실장 송정환

KT 노동조합 위원장을 대리하여 사무처장 김형